

박찬경 개인전 《안녕 安寧 Farewell》

기자간담회: 2017년 5월 25일 (목) 오전 11시 국제갤러리 2관

전시기간: 2017년 5월 25일 - 7월 2일

전시장소: 국제갤러리 2관 (K2) 1,2층

국제갤러리는 2017년 5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박찬경의 개인전 《안녕 安寧 Farewell》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제목 《안녕 安寧 Farewell》은 만나고 헤어질 때 공통으로 사용되는 '안부의 물음'과 '작별을 고하는' 양가적인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 이번 전시는 박찬경이 국내에서 5년만에 갖는 개인전으로 총 12여 점의 신작들을 국제갤러리 2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대표작품으로는 지난 세월호 사건을 비롯하여 한국 근현대사의 격변의 역사들을 환기하며, 무명의 희생자를 애도하는 3채널 비디오-오디오 작업 <시민의 숲>(2016), 한국의 제도권 미술이 지니는 자생적 미술사 서술의 한계를 잠재적이고 창조적인 판형들의 예시를 통해 제안하는 <작은 미술사>(2014/2017), 그리고 이 두 작품의 후속 작업 <승가사 가는 길>(2017)을 슬라이드 프로젝션으로 소개 예정이다. 이외에도 민속신앙과 전통을 재해석한 <밝은 별>(2017), <칠성도>(2017) 등 신작 13점을 선보인다.

*"근대성의 잘잘못이나 오류를 따지기 전에 근대성 자체를 상대화 하는 게 필요해요.
거리를 두고 보는 것. 그 속에 매몰돼서 보지 않고 빠져 나와서 근대성 자체를 낯설게
보지 않으면 새로운 사회나 예술에 대한 상상이 어렵겠죠."*

- 박찬경 인터뷰 발췌

이번 전시의 대표작품 중 하나인 3채널 비디오 <시민의 숲>은 오윤(1946-1986)의 미완성 그림 <원귀도>와 김수영(1921-1968)의 시 <거대한 뿌리>(1964)에서 착안한 작품으로, 이 두 작품에 대한 작가의 응답이자 한국 근현대에 대한 알레고리이다. 동학농민운동, 한국전쟁,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롯해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비극적이고 혼란스러운 한국의 현대사 속에서 이름 없이 희생된 무명의 사람들에 대한 애도를 주제로 했다. 작가는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세기가 훌쩍 지났음에도 위로 받지 못하고 떠돌아 다니는 영혼들을 위해 그 동안 제대로 치러지지 못했던 애도의 장을 마련했다.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들은 저도 모르게 작가가 준비한 의식에 동참해 그들의 안녕을 함께 기원하게 된다. 박찬경은 우리는 여전히 식민적인 문화 속에서 살고 있으며 지금까지 극복되지 못한 근대성의 한계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결과가 세월호 참사라 말한다.

박찬경이 써 내려간 <작은 미술사>는 한국과 아시아의 식민적인 미술제도에 대한 착잡하고도 해학적인 이야기이다. 그는 연대기적 서술과 동서양을 구분하는 미술사 대신에 수평과 수직, 송고미학, 미술관, 미술과

글, 동아시아 문화와 정치 등을 횡단하며 동서고금의 주요 미술작품을 주관적인 관점과 방식으로 재배열을 시도한다. 작가의 주관적 미술사는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성으로 인해 자생적 미술사 서술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작가는 이에 대해 비판 대신 '그렇다면 각자 쓰자. 허술하고 문제가 있고 미약하지만 그것을 정설로 제시하는 게 아닌 주관적이고 이단적인 형태로 각자 쓰는 게 재미있는 미술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묻는다. 이는 또 다른 미술사의 제안이 아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무한하게 전개될 수 있는 주관적 미술사의 잠재적이고 창조적인 판형들의 예시이다.

이번 전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작 <승가사 가는 길>은 <시민의 숲>과 <작은 미술사>의 후속작으로서 <시민의 숲>의 배경인 북한산 승가사에 가는 길을 슬라이드 필름으로 촬영한 것으로, '키치'와 '화염'을 오가는 한국적 감상주의에 대한 사진 이야기이다. 이 외에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롭게 제작한 오브제 작업 <밝은 별>, <칠성도>는 오늘날 '전통문화'라는 말 속에서 왜곡되어 이해되고 있는 '전통'의 실재에 다가서기 위한 시도이다. 작가가 말하는 전통이란 이미 단절된 것으로 전제하는 양식, 기호로서의 전통이 아닌 '신체적 기억' 혹은 파편으로서 존재하는 전통을 의미하며, 그는 이러한 전통을 '전통-실재'라 이름 지었다.

오늘날 우리가 박찬경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은 그가 오랫동안 던져왔던 질문들이 마치 지금의 시국을 예견한 듯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의 숲>이 완성된 것은 지난 2016년이나, 올해 국내에 소개되며 지금의 시국과 묘하게 맞물려 형언할 수 없는 울림을 일으킨다.

박찬경(b. 1965)은 1988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1995년 미국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에서 사진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14년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의 예술감독을 맡으며 기획자로서도 활동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블랙박스: 냉전 이미지의 기억>(1997), <세트>(2000), <파워통로>(2004), <비행>(2005), <신도안>(2008), 그리고 장편영화 <만신>(2013) 이 있다.

1990년대 평론가로 먼저 이름을 알린 박찬경은 이후 1997년 《블랙박스: 냉전 이미지의 기억》이란 주제로 금호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박찬경은 한국의 동시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냉전, 남북갈등, 민속신앙, 역사의 재구성과 같은 일련의 주제를 통해 한국의 근 현대사를 되짚어 보는 작업을 선보여왔다. 그의 작업은 성장과 발전 추구라는 명분 아래 성찰과 치유의 기회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한국 사회를 되돌아본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런던 이니바(2015), 아틀리에 에르메스(2008, 2012), 씬스페이스(2005) 등이 있고, 독일 HKW(2017), 타이페이 비엔날레(2016),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2016), 아트선재센터(2013), 광주비엔날레(2006), 프랑크푸르트 쿤스트페어라인(2005), 암스테르담 드 아펠 아트센터(2003) 등 국내외 유수의 기관에서 열린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수상경력으로는 2004년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을 비롯해 영화감독 박찬욱과 공동 연출을 맡은 <파란만장>으로 2011년 베를린 국제영화제 단편영화부문에서 황금곰상을 받았다. 주요 소장처로는 국립현대미술관, KADIST 예술재단, 프랑스 낭트 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아트선재센터 등이 있다.

박찬경의 <시민의 숲>은 2017년 아트바젤 언리미티드(Unlimited) 섹터의 참여작으로 선정되어 올 6월 스위스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들은 함께 첨부된 작품 및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홍보목적에만 전시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화질 이미지는 아래 웹하드를 통해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WEBHARD.CO.KR | ID: kukjegallery | PW: kukje

ZOE CHUN | COMMUNICATIONS DIRECTOR
T +82 2 3210 9885 | M +82 10 3570 8449 | zoe@kukjegallery.com

SABINNE CHEON | COMMUNICATIONS ASSISTANT DIRECTOR
T +82 2 3210 9821 | sabinne@kukjegallery.com

KUKJE GALLERY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03053 KOREA
T + 82 2 735 8449 | F + 82 2 733 4879 | WWW.KUKJEGALLERY.COM

박찬경 개인전 《안녕 安寧 Farewell》



시민의 숲

2016

Video (b&w), ambisonic 3D sound

26 분 38 초

3 채널 비디오

Courtesy of Art Sonje Center and Kukje Gallery

Acknowledgement to Taipei Biennial 2016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밝은 별 5 (뒷면)
김상돈과 협업
2017
명두, 자작나무 판에 단청
44 x 66.6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밝은 별 6
김상돈과 협업
2017
인조호피, 자작나무 판에 단청
78.5 x 54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칠성도 (상단: 앞면, 하단: 뒷면)
2017
명두, 자작나무 판에 단청
108 x 200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박찬경 개인전 《안녕 安寧 Farewell》



승가사 가는 길
2017
멀티채널 사진 슬라이드 연속상영
가변 크기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